

금O평가03C 과학영재교육원 학생들의 과학관련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 분석-특수목적고등학교
 진학 학생을 중심으로-
 17:40~18:00 김선자 박종욱 정순화 하상우
 청주교대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교육원 수료생들 중에서 과학관련 특수목적 고등학교(이하 특목고)로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과학영재교육원이 어떠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원 입학 전 진로, 입학 동기, 영재교육원 활동 중에서 자신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준 요인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조사하였고,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 기초 정보를 바탕으로 면담 항목을 구조화하였다. 설문 대상 학생 중 16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고, 녹음자료를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영재교육원 입학 전 특목고 진학을 생각했던 학생은 59%, 일반계나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학생은 41%였다. 입학 전에 특목고 진로를 생각했던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 것은 부모님의 영향, 교내외 과학탐구활동, 본인의 장래 희망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특목고 진로를 생각하지 않은 학생들은 특목고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거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자신이 과학에 적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았다. 둘째, 대부분 학생들은 본인의 희망이나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인해 영재교육원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학교 선생님이 나타났다. 셋째, 영재교육원의 교육활동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학생들이 언급한 것은 방학 중 집중교육에서 수행하는 공동탐구토론행사였다. 공동탐구토론행사를 통해 새로운 주제를 스스로 탐구하는 과학자적 활동을 경험하여 탐구능력이 향상되었고,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탐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과학에 대한 자신감을 키웠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육원에서 상호작용하게 되는 지도교수님의 모습에서 연구자나 과학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동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선의의 경쟁의식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 과학영재교육원 입학 전 진로와 이에 영향을 준 요인은 다양하지만, 개방적 탐구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영재교육원 활동은 학생들의 과학 관련 진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다.